

# 현안과 과제

-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분석과 전망

# 목 차

## ■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분석과 전망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조 .....	2
3.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동향 분석 .....	4
4. 종합 평가 .....	11
5. 전망 .....	1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경제센터 : 강 성 현 선임연구원 (2072-6221, shkang@hri.co.kr)

이 해 정 수석연구원 (2072-6226, hj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분석과 전망

#### ■ 개 요

2025년 6월, 북한은 동해안 전략 거점인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의 공식 개장을 예고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의 관광 정책 기초, 제도 정비 흐름,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관광기념품 산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초

##### ① 정책 기초

북한은 2020년대 들어 관광산업을 인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방 발전의 수단으로 재 정의하고, 산업 기반 정비와 내부 수요 대응 중심으로 정책 기초를 조정하였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관광대상 정비, 안내 체계 개선, 금강산관광지구의 자체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고, 2024년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는 각 지방의 입지 조건에 맞춘 관광 및 자원 개발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화·여가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문화중심 건설이 공식화되며, 관광이 체제 선전과 주민복지를 아우르는 다기능적 역할로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법제 정비

관광산업의 제도화를 위해 북한은 2023년 「관광법」을 제정하고, 2025년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제정하였다. 「관광법」은 기존의 하위 규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관광객 편의와 생태 환경 보호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및 「경제개발구 관광규정」 등을 준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동향 분석

##### ① 인바운드 관광 동향

2024년 2월부터 러시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한적 인바운드 관광이 재개되었으며, 2025년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 개장을 계기로 확대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다만 개장 초기에는 양덕은천문화휴양지 사례처럼 외국인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상 관광 중심의 운영이 예상된다. 한편, 양덕은천문화휴양지, 삼지연시 등 김정은 정권의 역점 관광지들은 여전히 인바운드 관광에 개방되지 않고 있는데, 체제관리 목적상 향후

에도 제한적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② 국내 관광 동향

2020년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한적으로나마 주민의 국내 관광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광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국내 관광 보도가 증가하였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항공·승마 구락부, 물놀이장 등 여가시설이 지방 대도시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행과 맞물려 문화·체육·상업 기능이 통합된 복합 여가공간이 조성되면서, 관광이 명승지 탐방 중심에서 일상생활과 결합된 생활형 관광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 ③ 관광기념품 산업 동향

관광기념품 산업은 관광수익의 극대화와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목표로 육성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이후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를 정례화시키고 그 규모를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념품 산업은 단순 홍보를 넘어 관광 상품 판매까지 연계되는 종합 전시로 기능하고 있다.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정책은 관광산업을 단순한 서비스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 내 파급 효과를 확대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인바운드 관광 홍보

북한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MITT) 참여를 통해 해외 관광홍보를 재개하였다. 또한 '조선관광'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 영상 및 긍정적 후기를 활용하며 홍보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 ■ 전망

북한은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공간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교·정치적 불확실성과 서비스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새로운 관광 모델 구축의 실험장이자 향후 개방 범위 확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지속 여부, 관광 개방 관련 체제 내부 판단, 인프라 미비 등은 외화 수익 창출과 산업 확장의 주요 제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관광도 여가시설 확충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는 확인되지만, 주민 구매력 저하와 지역 간 격차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광산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자율적 수요 기반 조성 and 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 1. 개요

- 2025년 6월 북한은 동해안의 전략적 관광 거점인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의 공식 개장을 예고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의 회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국경 봉쇄와 국제적 고립이 장기화되었음에도 북한은 관광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제한적 재개를 모색해 왔음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러시아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인 관광 시범사업을 통해 내부 역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 중임
    - 이러한 제한적 시범 운영은 향후 중국인이나 제3국 관광객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적 성격을 가지며, 관광산업의 단계적 복원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6월 개장 예정인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 사업 중 하나로 북한 관광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인식되고 있음
    - 동 특별구는 2017년 6월 착공 이후 공정 지연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완공 시점이 수차례 연기되었으며, 결국 2025년 6월에 이르러 개장을 맞이함
    - 호텔, 해수욕장·수영장, 공연장, 상업시설 등 복합 기반시설이 집약된 형태로 건설되어 그간 북한 관광산업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체류형 관광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사례로 평가
    - 향후 특별구 운영 성과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의 개방 범위와 방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대 초반 북한의 관광산업 정책 기조와 법제 정비 흐름, 인바운드·국내 관광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주요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2.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초

### ① 정책 기초

#### ○ 2020년대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기초는 산업 기반 재정비와 내부 관광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됨

- 북한의 관광산업은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본격화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음
  -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였던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충격을 주었음
-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비·보강전략(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관광산업도 산업 기반 재정비 중심으로 정책 기초가 조정되었음
  - 8차 당대회에서 관광산업의 주요 과업은 관광대상 정비, 소개선전방법 개선, 관광코스 및 안내체계 다양화 등 관광 부문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설정됨
  - 또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자체 개발 방침을 내세우고 총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 한편, 북한은 2024년 1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지방 인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광을 활용하고, 동년 12월 지방공업공장 외에 복합형 문화중심을 함께 건설하여 주민의 편의·여가시설을 확충할 것을 공식화

< 2020년대 북한 관광산업 정책 기초 >

구분	주요 내용
제8차 당대회 (2020.1)	- 관광사업 활성화 : 인민의 문명한 생활 향유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관광 부문 과제 ① : 관광대상 정비, 소개선전 방식 개선, 관광코스 및 안내체계 다양화 등 - 관광 부문 과제 ② : 총개발계획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 자체 개발 · 고성향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 문화지구 등 건설 계획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2024.1)	- 지방발전 20×10 정책 제시 : 바다산 등 지역의 입지 조건에 따라 관광과 자원을 개발·동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강조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2024.12)	- 지방발전 20×10 정책 건설 범위 확대 공식화 : 지방공업공장 외 보건시설, 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의 병행 건설 · 복합형 문화중심은 과학기술보급거점 및 영화관, 체육문화시설, 상업망 등 각종 편의, 여가시설을 포괄

자료 : 북한 「로동신문」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② 법제 정비

○ 북한은 「관광법」(2023.8)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5)을 제정하여 관광산업의 제도화 및 지역별 개발 전략의 법적 기반 강화를 모색

- 「관광법」(2023.8)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5)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관광법」은 그간 부재하였던 관광기본법적 성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북한의 관광 관련 법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내에 일부 조문을 두거나 그 하위규정으로 존재했으나, 2023년 「관광법」 제정을 통해 관광산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법령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노동신문에 따르면 「관광법」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국제관광 확대, 관광객 편의 보장, 생태환경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sup>1)</sup>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 관광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의 제정에 따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경제특구·개발구의 성격을 가진 특별구로 지정된 것이 확인
  - 해당 법은 인접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내용을 준하여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
    -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기본(1장), 관리(2장), 관광 및 관광봉사(3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4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5장), 제재 및 분쟁 해결(6장) 등 총 6장 41조로 구성.
  - 관광규정을 별도로 두었다면 「경제개발구 관광규정」의 내용을 차용했을 것으로 보임
    - ※ 「경제개발구 관광규정」 또한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객과 투자자에 대한 정의, 관광 관리 및 봉사, 관광 절차와 방법, 관광객 출입, 제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sup>2)</sup>
  - 다만 동 특별구가 북한의 자체적인 투자에 의해 건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을지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

1) 「노동신문」(2023.8.31).

2) 강정남(2016), “경제개발구관광제도의 기본내용,” 『우리나라무역』 2016년 4호, 공업출판사, pp. 9-10.

### 3.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동향 분석

#### ① 인바운드 관광 동향

#### ○ 2024년 2월부터 러시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인바운드 관광을 재개. 2025년부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음

- 2023년 8월 북한은 3년 7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봉쇄하였던 국경을 공식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인원의 외국 왕래를 허용
  - 2020년 1월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 국경을 봉쇄하며 외국과의 인적 교류를 중단시킴
  - 2023년 8월 27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코로나19 방역 등급의 (하향)조정 결정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하였음
- 2024년 2월부터는 러시아 단체관광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면서 제한적으로 인바운드 관광을 재개
  -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대 모객 시장이었던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외국인 단체관광 재개 국가로 선정
  - 다만, 러시아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방북 러시아 관광객 수는 880명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 러시아연방 통계청은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총 2,008명이며, 그 중 관광 목적의 방문객은 총 881명이라고 밝힘(RFA, 2025.2.8.).
- 2025년 2월부터는 라선시를 개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으나 3주만에 관광을 중단하고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라선시 관광 중단은 서방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북한 내부의 열악한 실상이 SNS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여짐
  - 이에 북한 당국이 라선시 관광 재개를 위해 시설 보수와 관광객 통제 방안 마련 등 내부 정비에 나섰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 한편, 2025년 2월 중국 소재 여행사들이 라선시 관광 상품을 판매하다가 중국 여유국이 해당 관광 및 홍보를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최근 북중 관계 변화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모객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시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이 전개됨에 따라 북한 동북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된 양상
  - 최근에는 러시아 관광객이 주로 방문함에 따라 청진시, 경성군, 칠보산을 비롯한 함경북도 지역 방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 북한 동부 지역의 경우, 2010년대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함경북도 방문 비중이 낮고, 함경남도 이남 지역(원산시, 함흥시, 금강산, 마식령스키장)이 주요 방문지였음.
  - 이에 주로 평양-백두산 간 이동에 활용하던 함경북도 소재 어랑비행장(청진공항, 국내선만 운영)의 활용도 활발해진 모습
  - 반면, 2025년 6월 현재 러시아 여행사가 판매 중인 북한 관광 상품 중 금강산을 방문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
  - 북한 관광 상품이 대체로 5일 이내의 짧은 일정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동 효율성이 높은 평양시 인근 묘향산이나 러시아 국경 인접 칠보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판단됨
  - 한편으로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로 관광객 수용 여력이 적고 주변 환경 정비가 미흡해 관광 일정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 관광 테마 또한 전통문화 보다는 근현대 역사 및 사회주의 건설사가 강조되는 경향도 존재
  - 러시아 여행사가 판매하고 있는 북한 관광 상품 중 개성시를 방문하는 일정은 드물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던 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역사 관련 상품은 조선시대 이전의 문화유적보다는 사회주의건설사나 반일·반미 항쟁사 등 근현대 중심의 역사 관광지가 보다 부각되는 경향이 보임
  - 이는 최근 북러 관계의 전략적 밀착과 러시아 내 사회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맞물리면서 관광 일정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여기에 일정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성시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점, 그리고 전통 유교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러시아 관광객의 수요 특성도 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건설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나 삼지연시는 2025년 6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되지 않은 상황
  -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년 12월 완공), 삼지연시(2021년 12월 3단계 완공, 추가 건설 진행 중)는 인바운드 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활용 중
  - 이와 같은 배경에는 한 관광지역 내에서 내·외국인이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덕온천은 외국인 전용 시설 없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현대적인 시설을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경우 체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방 가능성이 존재
  - 한편, 삼지연시는 북한 주민에게 사상 교양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별도의 관광지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7월 삼지연시의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미개발지인 북포태산 지역에 2년 내 스키장과 관광휴양지 건설, 삼지연비행장 개건, 관광철도 부설 등을 지시한 바 있음.
  
- 2025년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의 개장은 북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격을 다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임. 다만 올해에는 외국인 관광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포상관광이 주를 이룰 가능성 존재
  - 동 특별구는 2016년 7월 착공에 나섰으나 공정 차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완공기일이 수차례 연기되다 2025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음
    - ※ 완공 예정 기일 변화 : 2016년 7월 착공 → 2018년 9월 9일 → 2019년 4월 15일 → 2019년 10월 10일 → 2020년 4월 15일 → 2025년 6월.
  - 구역 내부에는 4km의 해변에 호텔 17개, 여관 37개, 상점 29개가 건설되었으며, 그밖에 공연장, 물놀이장, 역사박물관 등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짐<sup>3)</sup>
  - 동 특별구의 개장에 따라 북한 인바운드 관광의 성격이 단체관광 중심의 참관형 일정에서 벗어나 휴양·레저 중심의 체류형 관광에까지 확대될 여지 존재
  - 다만, 2025년 개장 초기에는 외국인 대상 개방 수준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즉, 오랜 기간 공사를 지속하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초기에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유공자나 건설 근로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내국인 우선 이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3) SPN(2024.7.18).

② 국내 관광 동향

○ 2020년대 대외 환경 변화(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 등)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워지자, 제한적으로나마 북한 주민의 국내 관광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광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sup>4)</sup>

-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인민의 문명한 생활 향유’를 국정 운영의 핵심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관광시설을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가시화하려고 함
  - 2021년 제8차 당대회와 2024년 제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에서는 관광을 단순한 외화벌이 수단이 아니라 주민 복지 향상의 실천 수단으로 명시
  - 이러한 기조 속에서 관광 시설을 주민 활용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체제 선전 효과, 내부 통합, 시설 유지 및 관리, 일정 수준의 경제 수익 등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
- 2020년대 국내 관광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하반기로 북한의 방역조치 완화 및 지역 간 이동 제한 해제된 시기와 맞물림
  - 북한 공식매체에서 온천, 명승지, 관광시설 등을 방문한 국내 관광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국내 관광이 제한적이거나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sup>5)</sup>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 평양 도심에 중심으로 건설된 여가 시설(문수 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항공구락부, 야외빙상장 등)도 2020년대에 들어서는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되는 양상도 나타남
  - 최근 지방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항공구락부, 승마구락부, 물놀이장, 청년야외극장, 휴양소 등이 건설되고 있음
  - 이는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문화·체육·관광이 결합된 생활 기반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에 국내 관광은 기존의 단순한 참관형·사상교양형 단체관광에서 벗어나, 여가 향유와 문화 소비 수요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복합적·생활 밀착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남

4) 북한의 국내 관광 실태나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부재하며,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내부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해 제한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

5) 「민주조선」(2023.9.10.; 2023.11.28.; 2023.12.1.), 「내나라」(2024.5.26.; 2025.6.20) 등.

- 이러한 관광·여가 시설의 지방 확산 흐름은 최근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행 구상과도 맞물려 있음
  - 3대 필수 건설 대상 중 하나인 ‘복합형 문화중심’은 과학기술보급기지과 영화관, 체육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통합된 편의·여가시설로 설계됨
  - 이는 관광이 단순한 명승지 방문 중심의 활동을 넘어서, 주민 생활환경 전반과 결합된 문화·체육·소비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구상되고 있음을 시사
  -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내 관광은 특정 명승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합 여가공간 중심으로 구조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24년 이후에는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관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소개하는 일종의 시리즈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특징
  - 2024년 하반기 이후 산악관광, 해양 및 해안관광, 생태관광, 자연치료관광 등 관광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백두산지구·칠보산지구·묘향산지구·성천온천 등 명승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연이어 게재됨<sup>6)</sup>
  - 이는 관광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수요를 자극하고, 나아가 관광을 생활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키려는 의도적 담론 형성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함

< 2020년대 건설·정비된 지방의 주요 관광·여가시설 >

구분	건설 지역
항공구락부	자강도('22.8), 평안남도('22.12), 평안북도('22.12), 강원도('23.12), 남포특별시('23.10), 황해북도('23.10), 황해남도('25.1)
승마구락부	함경북도 청진시(유원지 승마주로, '22.10), 평안북도('23.12), 자강도('24.6), 남포특별시('24.10), 평안남도('24.12)
야외빙상장	평안북도 향산군('20.12)
청년야외극장	평안북도('20.12), 평안남도('20.10), 황해북도('20.11), 황해남도('20.12), 남포특별시('22.5), 함경북도('22.11), 자강도('23.8), 함경남도('23.12), 나선특별시('24.11)
공원·유원지	안주칠성공원 개건('20.12), 함흥민속공원('21.1), 남포룡강민속공원('22.12), 남포와우도유원지 개건('23.8), 나선해안공원('24.7)
문화유적 정비	보현사(평북 향산군), 룡문동굴(평북 구장군), 룡흥사(함남 영광군), 통군정(평북 의주군), 제월루(함남 함흥시), 영파루(자강 희천시), 정방산성(황북 사리원시) 등

자료 : 북한 「로동신문」 등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6) 「로동신문」(2024.7.14.; 2024.7.21.; 2024.9.8.; 2024.9.15.; 2024.9.17.; 2024.9.22.; 2024.9.25.; 2024년 11.3; 2024.12.1.; 2025.1.5.; 2025.1.12) 등.

### ③ 관광기념품 산업 동향

#### ○ 최근 북한은 관광 수익 극대화 및 관광-지역경제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관광 기념품 산업의 육성을 모색하고 있음

- 2022년 말부터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중
  - 동 전시회는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2025년 4월까지 총 3차례 열렸으며, 전시 규모와 품목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출품 품목은 주로 공예품, 민예품, 화장품, 식료가공품, 고려약 등으로 구성
- 관광기념품 산업의 육성은 관광활동에 수반되는 부가적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 수익을 극대화하고, 관광을 매개로 지역 생산 부문과의 연계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관광기념품 산업은 관광의 고부가가치 부문으로서, 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관광지 방문 효과를 경제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
  - 특히 기념품의 생산·유통 과정에 일반 제조업 공장·기업소, 일용품 개발소, 민예품 사업소, 고려약 공장 등 다양한 생산 단위가 참여하면서 관광과 지역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모습
  - 즉, 관광산업을 단순한 서비스업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과 연계시켜 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 내 파급 효과를 창출·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관광기념품 전시회는 단순한 기념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관광 상품 소개 및 판매와 연계된 관광 종합 전시회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념품 전시는 공예품, 식료가공품 등 관광지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관광지 정보와 관광 상품 구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되고 있음
  - 이는 관광기념품 전시회가 단순 소비재 유통을 넘어,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관광 서비스 소비와 연계되는 매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2025년 6월 현재 ‘조선관광’ 공식 웹사이트 내에 관광기념품 관련 항목이 신설되어 있으나, 등록된 상품은 없는 상태로 확인됨

④ 인바운드 관광 홍보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의 대외 관광 홍보 활동은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음

- 북한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 박람회 (MITT)’에 참가하여, 자국 관광 자원을 외국 바이어 및 여행사에 직접 소개하는 공식 채널을 다시 가동함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 개장으로 개방이 확대될 시, 유럽이나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할 가능성 높음
- 아울러, 대외 홍보 웹사이트인 ‘조선관광’에서도 콘텐츠 구성의 변화가 관찰됨
  - 기존에는 정지 사진 위주의 관광지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방문 장면과 긍정적 평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몰입도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

<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2025(상) 및 MITT-2024 북한 부스(하) >



자료 : 상단 사진은 NEWS1, 하단 사진은 NKNEWS 참고.

#### 4. 종합 평가

○ 2020년대 초반 북한 관광산업은 제도·인프라·홍보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제관계 불확실성과 주민 소비 여건 제약으로 전면적 회복 국면에는 진입하지 못한 양상

- 관광산업의 내실화 기조에 따라 법제 정비, 국내 관광 기반 확충, 연계 산업 육성, 홍보 방식 개선 등에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관광법」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 제정을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
  -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의 정례화, 공예품·화장품·고려약 등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외형적 기반이 일정 정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조선관광’ 웹사이트 개편과 동영상 콘텐츠 확대 등 디지털 홍보 수단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외국인 대상 긍정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는 양상도 포착됨
  -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중심지에 문화 활동, 여가시설, 생활 소비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 조성되면서, 관광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관광산업을 단순히 외화 획득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 개발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반면, 인바운드 관광은 러시아 관광객 중심으로 전개되고, 주민의 구매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 관광의 확장성도 제한적이어서, 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 관광객의 라선시 관광 중단 사례에서 나타나듯, 정치·외교적 변수에 따라 관광 재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인바운드 관광의 회복에도 제약으로 작용
  - 국내 관광 또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일정 수준의 수요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대규모 이동과 숙박·체험 등 체류형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주민들의 소비 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름

## 5. 전망

- 북한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공간적 실험이 진행 중이나 실제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외부 변수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는 기존 참관형·단체 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휴양 및 체류형·개별 관광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 모델을 시험·구축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
    - 기존의 단체관광과 달리 특별구 중심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율적 경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동 특별구가 숙박·상업·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설계된 점은 기존의 짧은 참관형 관광의 한계를 보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높이는 실험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향후 외국인 관광 재개 시, 제한된 단체관광 외에 개별 또는 소규모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북한 관광 상품의 유통방식 다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인바운드 관광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외교·정치적 불확실성과 관광 운영 전반의 여건 미비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 향후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는 대북제재의 지속 여부와 북중 관계의 안정성, 관광 개방에 대한 체제 내부의 정치적 판단 등 외교·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라선시 관광의 중단 사례에서 보듯, 외부 정보 유입과 체제 이미지 노출에 대한 우려는 개방 확대의 반복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관광객 유치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기반의 불안정성, 개방 범위에 대한 체제 내부의 보수적 판단은 관광의 상업적 성과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시설의 품질, 운영 인력, 수용 인프라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초기 외국인 대상 관광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범적·선전적 성격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국내 관광 활성화 역시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반의 확대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주민 구매력의 전반적 저하, 불균형한 지역 관광 인프라, 자율적 관광문화 부재 등은 국내 관광 수요 형성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됨
  - 최근 여가시설의 지방 확산과 관광 관련 담론 형성은 긍정적 흐름이나, 이는 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결국 주민 관광의 확대가 관광정책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제도적 기반의 동시적 개선이 요구됨 **HRI**

## 참고 문헌

- 강정남(2016). “경제개발구관광제도의 기본내용,” 『우리나라무역』 2016년 4호. 공업출판사.
- NEWS1(2025.4.19). “北 평양시 관광기념품 전시회 2025 개막.” <<https://www.news1.kr/photos/7244250>>(검색일: 2025.6.19)
- \_\_\_\_\_(2025.4.28). “北, '평양시관광기념품전시회 2025' 폐막..."과학 성과 교류".<<https://www.news1.kr/photos/7258359>>(검색일: 2025.6.19).
- NKNEWS(2024.3.21). “Second Russian travel agency joins rush to take tourists to North Korea.<<https://www.nknews.org/2024/03/second-russian-travel-agency-joins-rush-to-take-tourists-to-north-korea/>>(검색일: 2025.6.19)
- RFA(2025.2.8). “북한 방문 러시아 관광객, 지난해 881명..."기대에 못 미쳐." <<https://www.sp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42>>(검색일: 2025.6.20).
- SPN(2024.7.18). “北 관광개발 관심... 해외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노리나.”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84>>(검색일: 2025.6.20).
- 「내나라」(2024.5.26), “시민들이 관광을 즐긴다.”
- \_\_\_\_\_(2025.6.20), “정방산의 옛성터와 성불사.”
- 「로동신문」(2023.8.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 \_\_\_\_\_(2024.7.14). “백두산지구.”
- \_\_\_\_\_(2024.7.21). “산악관광지.”
- \_\_\_\_\_(2024.9.8). “해양 및 해안관광.”
- \_\_\_\_\_(2024.9.15). “전망이 큰 생태관광.”
- \_\_\_\_\_(2024.9.17). “묘향산지구.”
- \_\_\_\_\_(2024.9.22). “산악관광.”
- \_\_\_\_\_(2024.9.25). “칠보산지구.”
- \_\_\_\_\_(2024.11.3). “자연치료관광자원에 대하여.”
- \_\_\_\_\_(2024.12.1). “관광도시.”
- \_\_\_\_\_(2025.1.5). “성천온천.”
- \_\_\_\_\_(2025.1.12). “치료관광.”
- 「민주조선」(2023.10.9). “여행사의 독특한 얼굴－《골프관광》.”
- \_\_\_\_\_(2023.12.1). “관광봉사에서 명성이 자자한 여행사.”
- \_\_\_\_\_(2023.11.28). “날로 발전하는 국내관광업.”